

‘이대남’과 반 페미니즘 담론

: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중심으로

김수아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부교수/여성연구원 겸무연구원

목차

- 1 들어가며
- 2 GS25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과 ‘남성 혐오’ 담론
 - 2.1 ‘메갈’의 대상과 속성의 구성
 - 2.2 ‘이대남’의 대상과 속성의 구성
 - 2.3 젠더 갈등의 개념과 속성의 구성: ‘남성혐오’를 통해 정의되는 젠더 갈등
- 3 공정과 성평등 개념의 재맥락화
 - 3.1 양성평등의 인식론과 평등 개념의 재맥락화
 - 3.2 오염된 정치사상으로서의 페미니즘
 - 3.3 페미니즘과 공정의 재맥락화
 - 3.4 ‘우리-내러티브’와 소비자-시민
- 4 나가며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글은 2010년대 후반부터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반 페미니즘 주장이 우세해진 가운데 일어난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둘러싼 담론을 분석하였다.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여 주요 행위 장인 언론, 정치,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지식 서비스, 청와대 청원에서 담론의 주체와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었다. 페미니즘이라는 대상은 부정의한 사상 체계로 개념화되었고, ‘남성혐오’ 사상인 페미니즘에 분노한 20대 남성이 윤리적인 관점에서 소비자 운동을 통해 공정을 실현한다는 담론이 형성되었다. 정부와 여당, 진보 세력은 이러한 공정의 담론을 외면해왔다고 정의되었고, 기계적 균형과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공정 개념이 페미니즘을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지식 서비스는 페미니즘을 성평등에 반대하는 부정의로 개념화하고, 이제까지 남성들이 남성혐오를 견뎌왔다는 ‘우리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소비자 시민주의라는 집단 행위성을 구축하였다. 페미니즘에 대한 부정적인 재맥락화를 비판하면서 페미니즘의 의미를 재구축하기 위해 논의되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문핵심어: 페미니즘, 반 페미니즘, 성평등, ‘남성혐오’, 담론역사적 관점

1 들어가며

2021년 5월, GS25 편의점 행사 포스터에 메갈리아의 손가락 기호가 쓰였다는 고발이 시작된 이후, 다수 업체와 공공기관이 손가락 기호가 들어간 포스터와 도상물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하여 ‘남성혐오’를 하는 메갈리아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앞다투어 선언하였다. 전례없는 속도로 전개된 이 논란의 와중에 메갈리아가 생기기 전인 2012년에 제작된 전쟁기념관의 공공설치물이 철거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즉, 메갈리아 사이트와는 상관없이 페미니즘이 곧 ‘남성혐오’라고 개념화되면서 ‘메갈’ 즉 페미니즘 사상을 우리 사회로부터 배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광범위하게 수용된 것이다. 이 논란은, 이제까지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진행되어 왔던 반(反) 페미니즘 주장이 소비자 운동의 형태를 입고 현실화하여 반 페

미니즘에 근거한 전제들을 진실로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어 주고 있다.

반 페미니즘 주장들이 최근에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이 글은 최근의 논란에 초점을 맞추어 이제까지 온라인 공간에서 구성되고 진실화된 반 페미니즘 담론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 내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특정한 이해 방식을 구성하고 이를 청년 세대의 공정에 대한 열망과 결부시켜 페미니즘을 혐오로 개념화하고 불공정함을 요구하는 오염된 정치 이념이라고 구성하는 담론 실천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담론 구성의 맥락을 드러내기 위해 공정과 성평등의 개념이 우리 사회에서 현재 어떻게 의미화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것이다. 이 연구는 담론의 개념에 기대어 어떠한 개념이 구성되어 진실이 되고, 어떤 주체의 발화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지, 어떤 주체가 배제되는지를 살피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담론이 유통되고 진실화되는 구조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담론역사적(discourse-historical) 분석 방법을 채택하였다. 레이시글(Reisigl)과 보닥(Wodak)에 따르면, 담론역사적 분석 방법은 특정 담론의 주제를 식별하고 담론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면서 어떤 언어적 표현이 등장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역사적 분석방법론은 담론의 주제들을 추출하여, 해당 담론 주제들이 어떠한 장르 속에서 어떤 주제들을 통해 발화되고 상호 텍스트적으로 연결되면서 담론을 형성하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하나의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연결되거나 재맥락화하는 과정으로서의 상호텍스트성을 분석하고, 담론의 얽힘과 하위 주제들의 출현, 그리고 담론의 틀을 구성하는 사회적 현실로서의 행위장과 이장에서 수행되는 장르를 분석한다. 담론역사학적 분석방법이 주목하는 것은 ① 주체, 대상, 현상과 사건, 과정, 행위가 어떻게 명명되고 지칭되는지 ② 사회적 행위자나 대상, 현상과 사건, 과정에 어떠한 특징과 속성이 부여되는지 ③ 담론에 사용되는 논거가 무엇인지 ④ 어떤 관점에서 이러한 명명과 속성 부여와 논거가 표현되는지 ⑤ 어떤 발화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고, 강화 또는 완화되는지 등이다.¹

1 Martin Reisigl and Ruth Wodak,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eds., John Flowerdew & John E. Richardson, *The Routledge handbook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Routledge,

이 글의 주요 분석 대상인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은 5월 1일 GS25의 ‘캠핑 자자’ 포스터를 둘러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전제 보도로부터 본격화되었다. 언론이 사회적 현실을 매개하고 가시화하는 기능을 한다는 전제 하에 어떤 발화자와 사건들이 존재하는지를 중심으로 담론 지형과 장르를 구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남녀 갈등, 젠더 갈등, ‘메갈’, 손가락, 남성혐오, 남혐, 페미니즘, 역차별 등의 키워드를 통해 언론 보도를 수집한 결과,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² 빈출어 목록을 통해, 주요 분석 대상으로 GS25 논란, 페미 게이트 논란, 정부 지지율 등이 주요 사건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1. ‘메갈’ 논란 관련 언론 보도의 빈출어 목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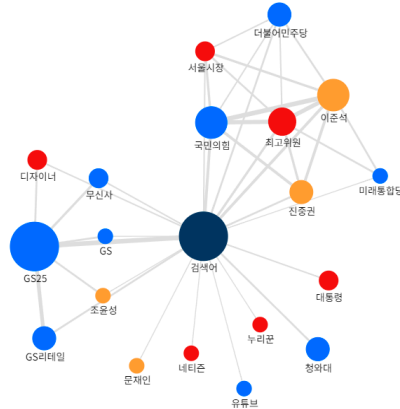
행위자	남성, 여성, 이준석, 청년, 대통령, 민주당, 피해자, 페미, 경찰, ‘메갈’, 세대, 국민의 힘, 남자, 남녀, 누리꾼
사건	혐의, 문제, 조사, 사건, 사과, 페미게이트, 경쟁, 처벌, 지지율, GS25
속성	혐오, 갈등, 경쟁, 일부, 남혐, 피해, 공정
논증방식	목소리, 논란, 주장, 사실, 지적, 비판, 분석

또한 분석된 빈출어는 특정한 사건 범주로 연결되는 관계도를 보인다. 관계도 분석에서, GS25 손가락 논란을 통해 벌어진 불매운동(무신사 포함)과 더불어 국민의 힘의 당대표 선출을 둘러싼 정치 과정의 맥락, 그리고 청와대(청원)와 대통령(지지율), 유튜브와 누리꾼 등의 주체와 담론 영역이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다.³

2017, pp. 92-94.

- 2 해당 키워드의 분석을 위해서는 텍스콤(texcom.co.kr)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한국경제, 전자신문, MBC, KBS, SBS, YTN 등이다. 해당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에서 사용된 명사 중 빈출어 상위 200개 내에서, 담론역사적 분석의 틀에 맞추어 관련 단어를 정리하였다.
- 3 빅카인즈(bigkinds) 서비스를 이용하여 텍스콤 서비스와 동일한 언론사의 기사 목록에 대한 연관도 분석을 한 결과를 시각화 한 것이다. 관련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 중 중복 기사(통

그림1. ‘메갈’ 논란 관련 언론보도에서의 개체 관계도



이에 따라, 이 글이 분석 대상으로 삼는 장르는 언론 보도, 정치인의 발화(이준석), 소셜 미디어(유튜브), 온라인 커뮤니티(네티즌과 누리꾼), 그리고 청와대 청원 등이다. 이러한 장르들 속에서 어떤 주체가 부각되는지, 그리고 담론의 상호텍스트성과 상호담론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담론의 재맥락화 과정으로, 담론은 하나의 장르나 행위 장에서 다른 장르와 장으로 연결되고 이동하면서 확산되고 다른 담론과 중첩되는데, 이러한 재맥락화(recontextualization) 과정을 통해 의미가 재구성되는 것을 살피기 위함이다.⁴

2 GS25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과 ‘남성 혐오’ 담론

2.1 ‘메갈’의 대상과 속성의 구성

한국 사회에서 온라인 문화의 주요한 정조는 반페미니즘이었지만, 상황적 맥락에 따른 반페미니즘 담론의 세부 구성 과정과 내용은 차이가 있다. 2016년 전후로 메갈리아의 미러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일 때에는 ‘메갈’과 ‘진정한’ 페미니즘이 구분되었다.⁵ 즉, 한국에는 ‘남혐하는’ 왜곡된 페미니즘이 있다는 것

신사 전제 기사 등)를 제외하고 분석에 사용된 기사는 404건이다.

4 Reisigl and Wodak, *op.cit.*, p. 90.

5 김수아·이예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제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67-107쪽.

이 메갈리아의 미러링에 대한 주요 반응이었으며, ‘한남충’ 표현이 모욕죄 판결을 받게 되면서⁶ 미러링은 ‘남성혐오’이고 메갈리아는 일베와 마찬가지로 문제적 집단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구성되었다. ‘메갈’과 ‘진정한’ 페미니즘의 구분은 2018년 게임업계의 ‘메갈’ 논란이 불거지면서 ‘메갈’은 곧 한국 페미니즘 자체라는 인식으로 전환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를 SNS에서 구독하는 것이 ‘메갈’의 증거라는 게임 업계의 대응에서 단적으로 나타난 것처럼⁷, ‘메갈’이 한국 페미니즘을 가리키는 동의어처럼 사용되면서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특히 게임 하위 문화 내부에서 페미니즘은 우리 사회에서 몰아내야 할 사회악으로 개념화되었다. 이처럼 ‘메갈’로 상징화되는 페미니즘에 대한 낙인 찍기는 특정한 표현, 기호의 사용을 ‘메갈’로 몰아가는 것으로 지속되어 왔다. 메갈리아 사이트만이 아닌 여성 중심 커뮤니티 일반이 ‘메갈’의 근원지로 지목되었고 신조어가 ‘남성 혐오’라는 이유로 연예인이나 웹툰 작가 등이 비난을 받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페미 낙인’이 광범위한 사회적 현상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손가락 기호 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5월 1일 GS25 포스터에 메갈리아의 상징이 쓰였다는 커뮤니티 게시글이 게시된 당일, 소수 언론에만 보도되었다가 GS25가 발 빠르게 사과문을 게시한 이후 주류 언론들이 “GS25가 왜 사과하게 되었나”를 기사화하면서 관련 논란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특히 보수 언론은 문제를 제기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전제하다시피 하였는데, 5월 2일자 조선일보 보도는 “이날 GS25 SNS 계정에 ‘캠핑 가자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 이벤트 포스터가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손 모양의 일러스트가 남혐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남성을 혐오하는 표현으로 쓸 때 표현하는 손 모양이었다는 것. (중략) 메갈은 남성 혐오자 등을 뜻하는 것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알려져 있다.”⁸라고 하여,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 내용을 사실로 ‘승인’하는 기사를

6 강푸름, 「‘한남충’이 모욕죄? 그럼 맘충·김치녀는?」, 『여성신문』, 2017.07.24.

7 이기범, 「“왜 여성민우회 팔로우했나?”…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 검증 논란 확산」, 『블로터』, 2018.03.28.

8 장근욱, 「“저 손모양 뭐냐” GS25 포스터에 ‘이대남’ 발끈한 이유」, 『조선일보』, 2021.05.02.

내보냈다.⁹ 여기서 ‘메갈’은 남성혐오자로 “알려져 있다”는 보도 표현에 따라 사실로 명명되었고, 해당 포스터는 ‘남혐’ 사건이자 기호를 몰래 숨겨서 암암리에 ‘남혐 사상을 확산시키려는 ‘음모’로 정의되었다.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에서 가장 중요한 언론의 취재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즉, 언론 보도와 중첩되는 담론 장르는 온라인 커뮤니티이다. ‘메갈’ 남혐 논란은 뽀뿌(www.ppomppu.co.kr)에서 시작해서, 펌코(fmkorea.com),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의 갤러리 등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뽀’를 통해 유포되다가 언론에 의해 기사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온라인 커뮤니티의 논란을 기사화하는 언론의 논란 보도는 ‘메갈’과 ‘남성혐오’를 연결하면서 ‘메갈’로 대표되는 페미니즘의 삭제를 사건의 해결책으로 정당화하는 효과를 갖는다. ‘남혐’은 전제로 가정되어 질문되지 않았다.¹⁰ 사건의 진행은 “메갈의 손가락 모양과 유사한 모양이 쓰이긴 했지만 메갈이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으로 이어졌고, ‘남혐’이 도대체 무엇이고 유의미한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오히려 ‘남혐’의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언론을 통해 제시되었는데, “이제 ‘남혐(남성 혐오)’ 경계의 시대가 온 것일까”와 같은 부제목이 등장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최근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 제목만 읽는 독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사 상세 내용이 형식적 객관주의 구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혐의 시대’를 사실화하는 효과를 낳는다.

‘숨은 메갈 찾기’와 같은 수사가 다수 언론에 의해 사용되었고¹¹, 이 행위가

9 이러한 보도 내용은 언론마다 반복되었는데,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백래시 관련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이러한 커뮤니티 게시물 인용 단순 논란 보도가 전체 기사량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분석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집게 손가락 포스터’ 논란 언론이 키운 백래시」, 『미디어오늘』, 2021.6.28.

10 이는 메갈리아의 미러링에서 남성 자아를 모욕하는 가장 효과적 방식이 성적 능력으로 남성성이 증명되는 가치 체계를 패러디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모욕으로 인지하면서 혐오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여성주의 입장의 비판이 제기되어 왔지만, 이러한 관점은 반영되지 못했다.

11 이동준, 「남혐 논란에 ‘숨은 메갈’ 찾아 삭제하기 바빠… 교촌, 인스타서 이미지 삭제」, 『세계일보』, 2021.05.07.

소비재 업계를 넘어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찾아진 증거’들은 사실이 되면서 ‘남성혐오’가 암약하는 시대라는 함의를 갖게 되었다. ‘메갈’이라는 대상은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수색되어 발각되고’, 이것이 업계로 전달되어 ‘삭제되는’ 것이 되었고, 이에 따라 담론적 사건은 ‘혐의가 있고, 사건이 되었으며 혐의를 받은 측이 사과를 하는’ 방식으로 담론 체계를 완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담론 체계가 이번 GS25 포스터의 손가락 기호 논란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언론이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이를 기업들이 받아들이면서 남혐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사실로 인정되는 구조가 온라인 하위 문화를 넘어 대중의 인식 속에 작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이대남’의 대상과 속성의 구성

언론은 자신들의 보도 내용 출처를 온라인 커뮤니티라고 밝히면서 특정되지는 않지만 실체인 것 같이 담론 주체를 구성하기도 하고 명백하게 남성 주체를 호명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조선일보는 앞선 인용 기사에서 ‘메갈’의 대립자로 ‘이대남’을 호명하여 ‘젠더 갈등’의 주체로 ‘메갈’과 ‘이대남’을 대립시켰다.¹² 이러한 틀 내에서 남성과 청년 세대는 젠더 갈등의 한 축이자 ‘메갈’의 혐오 피해자로 등장하게 된다. 여성은 청년 세대의 담론 속에서 배제되고, 그 발언이 유의미하게 언론에 의해 표집되지 못한 채로, 남성의 목소리만 언론에 의해 부각되고 있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이대남”이 언론의 주요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청년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의미이며, 주요 일간지와 방송사가 ‘이대남’을 호명하였는데 특히 보수 언론의 경우가 그러했다.¹³ 20대 관련 기사에서 성별 표기를 명확하게 하지 않거나 여론 조사의 남녀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보도된 경우도 있지만, 인용이 있는 경우 남성의 목소리가 더 많이 인용되고 있었다. 청

12 이십대 남성, 청년 세대 남성을 ‘이대남’으로 호명한 것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며, 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나 이 글에서는 언론 보도와 온라인 표현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13 조선일보(5월 1일자)의 경우 10대 남성을 성평등 담론의 당사자로 소환하기도 했다.

년 남성(‘이대남’)은 여당을 심판한 존재(중앙일보, 2021.5.11.)로 선거라는 정치 과정 내에서 의미화되었는데,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경우 ‘이대남’이라는 명명과 페미니즘이 여당 패배의 원인이라는 분석에 대한 지속적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수 언론은 ‘이대남’ 주체를 현 정권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페미니즘에 비판적인 사람들로 의미화하여, 온라인 커뮤니티를 끌어 올리는 방식, 정부 비판이라는 주제에 연동되어 20대가 동원되는 방식을 2018년 해화역 시위 이후로 반복하고 있다. 이는 보수 언론의 정치적 장 구성에서 ‘이대남’ 그리고 페미니즘이 정부 비판의 구성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함의를 드러낸다. 언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목소리 재현이 달라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은 경향신문과 같은 언론에 대해서는 댓글에서 ‘페미 언론’의 편향을 비난하는 형태로¹⁴ 해당 기사의 의미를 축소하고, 유튜브와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는 소위 진보 언론은 정권을 옹호하고 남성을 외면한다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부여한다.

표2. 분석 기간 내 언론의 여론 조사/목소리 보도 기사 제목

보도일자	언론사명	기사명	주요 ‘목소리’
2021.5.1	조선일보	“왜 남자만 화장실서 체육복?” 성평등 예민한 10대 교실풍경	10대 남성
2021.5.1	KBS	20대에게 물었다... “우리가 분노한 이유는”	여론조사
2021.5.1	경향신문	20대 여성이 말한다, 1번도 2번도 안 짝은 이유	20대 여성
2021.5.3	경향신문	이대남 “페미 때문에 오세훈 짝은 것 아니다”	20대 남성
2021.5.6.	조선일보	2030, 輿의원 면전서 “김여준이 성역이나” “민주당이 훗날 대상”	20대 남성

14 경향신문의 5월 22일자 기사에서 네이버 포털 서비스 댓글 중 “페미언론-한겨레 경향 오마이 미디어오늘 여성신문 등등”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2021.5.6.	YTN	“輿, 어리석고 갈 길 멀어”... 쓴소리 쏟아낸 20대	20대 남성
2021.5.9	중앙일보	온라인서 ‘물고뜯던’ 그들 모였다, 이남자·이여자 진짜 속내	20대 남녀
2021.5.11	중앙일보	‘집게 손가락’에 더 험악해진 젠더충돌, 단순 해프닝 아니다	여론조사
2021.5.18	조선일보	20대들 “요즘 민주당 지지하면 놀림받아요”	성별 무표기
2021.5.22	경향신문	이대남·이대녀 현상...맞는 분석일까?	여론조사

경향신문(2021.5.22.)은 “청년들의 ‘계급적 분노’를 허구적 담론으로 윗세대에 대한 분노로 오도하는 담론”이 이대남 담론일 수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하면서, ‘이대남’이라는 주체가 ‘상상된’ 주체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선행 연구들은 20대 여성과 남성을 연구했을 때, 20대 남성이 반페미니즘적 인식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¹⁵ 청년층의 인식 구조는 모순적이며 다층적이며, 특히 불평등에 대한 인식 구조가 계층 및 지역, 젠더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임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¹⁶ 즉, ‘이대남’으로 단순화하기 어려우며, 노동 환경 변화 및 미디어 환경 변화가 아울러 논의되어야 할 것과, 교차적 관점을 통한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보수 언론은 ‘목소리’를 통해 정권에 실망하고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20대 남성들을 주요 화자로 부각하

15 천관울·정한울,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시사IN북, 2019, 59-100쪽.; 김선기, 「납작한 당사자주의의 한계와 ‘이대남’ 정치, 젠더어팩트 연구소 긴급토론회 발표문(2021.06.05.)」, 18-23쪽.

16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27-52쪽.; 마경희 외,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 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336-338쪽.; 신진욱·조은혜, 「세대 균열의 현실, 세대 담론의 재현: 세대 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49-99쪽.; 최종숙,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 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020, 189-224쪽.

면서 사건의 행위자로 등장시켰다. 이에 따라 사건은 분노한 ‘이대남’과, 이들의 분노에 대응해야 하는 업체 혹은 경찰과 같은 공공기관 주체 사이에서 일어나지만, ‘메갈’은 부정적 대상으로 부인해야 할 대상일 뿐 주체로 등장하지 못한다. 여성은 갈등을 줄인다는 명제 하에 남성의 목소리와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인용되며, 성차별 현실에 대한 여성의 목소리는 금지되거나 혹은 들을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척되었다. 이러한 담론 과정을 통해 ‘이대남’은 현 정부 반대와 반 페미니즘으로 축약된 청년 남성상으로 구성되었으며, 페미니즘이 청년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라고 주장하는 주체로 그려지게 되었다.

2.3. 젠더 갈등의 개념과 속성의 구성: ‘남성혐오’를 통해 정의되는 젠더 갈등

GS25 논란과 같이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물들이 논란을 거쳐 사실이 되는 데에는 정치인의 발화라는 장르를 통해 권위를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다. 당시 이준석과 진중권 행위자의 페이스북 설전¹⁷은 해당 논란의 의미를 야당 정치인이 보증하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 정치적 장을 설정하는 효과 외에, 이준석 행위자는 ‘메갈’ 논란을 젠더 갈등으로 전환하고, 젠더 갈등의 의미를 ‘남성혐오’가 심각한 사회의 문제라는 식으로 재구성하는 담론 행위자로 역할하였다.

‘남성혐오’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맥락에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표현을 둘러싼 담론 경쟁에서 혐오가 나쁜 말과 동치된 상황이 존재한다. 언어의 의미를 따져 비하와 차별의 의미가 있다면 혐오표현이라는 인식이 법원 판결을 근거로 광범위하게 동의를 얻고 있다. 다수 연구자들은 혐오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제라는 점을 강조하며¹⁸, 특히 ‘남성혐오’라는 개념이 존재할 수 없

17 현 국민의 힘 대표인 이준석 전 국민의 힘 최고위원은 전 동양대 교수 진중권과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페미니즘 주제의 논쟁을 벌여왔다. 이준석 대표는 2011년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비대위를 통해 정치에 입문했고, 청년 남성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18 이설희·김수아·홍남희,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5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61-103쪽.

음을 지적했는데, 예를 들어 정희진은 당시 논의되었던 ‘남성혐오’는 남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여성혐오에 대한 반대의 의미라고 하면서, 여성혐오가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공격과 물리적 위협과 관련되는 반면 ‘남성혐오’는 여성이 남성에 대한 공격적인 말을 할 때를 지칭하고 있는데 이를 동치하는 것이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¹⁹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남성혐오’ 표현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혐오의 문제를 모욕적 표현의 문제로 정의한다.²⁰ 이는 혐오와 모욕을 같은 것으로 보고, 사회적 차별 구조에 대한 논의를 하기보다는 모욕적인 말의 문제로 혐오 표현을 바라보는 데 기인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여성혐오 표현이 광범위하게 관측됨에도 불구하고, 심의규제기관이 ‘남성혐오’를 특별심의하면서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 중 급격하게 증가하는 문제로 의미화한 바 있다.²¹ 이처럼 한국에서의 혐오는 ‘나쁜 말’의 문제로 비속어와 욕설의 의미로 이해되는 문제가 있으며²², 이에 따라 ‘남성혐오’는 실존하는 현상이 되고 있다.

다른 행위자로서 이준석의 발화는 ‘남성혐오’와 젠더 갈등을 결합하면서 젠더 갈등의 의미를 재맥락화한다. 5월 2일 GS25 포스터의 “Emotional Camping Must-have Item”이 콩글리쉬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며 명백하게 ‘매갈’의 암호라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개인 의견 표명의 도구인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렸으며²³, 이는 정치인의 페이스북 메시지를 일일이 기사화하는 한국 포털 중심 뉴스 소비 구조에 의해 빠르게 기사화되었다. “젠더 갈등이 없다고 이 악물고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기사화되는 맥락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듯”으로 시작하는

19 정희진,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인물과사상』 제210호, 인물과사상사, 2015, 110-124쪽.

20 박대아,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반사형(反射型) 혐오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76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95-118쪽.

21 이다원, 「위마드 비하·혐오 유해게시물 시정요구 1년간 5.7배 급증」, 『서울경제』, 2018. 10.26.

22 이준웅·박장희,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43쪽.

23 이준석, 페이스북 게시물, 2021.05.02.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3981476808596700&id=100002032604879&sfnsn=mo)

해당 게시물은, ‘젠더 갈등’을 부인하는 주장들의 다층성을 단순화하여 젠더 갈등의 의미를 전환시킨다. 여기 언급된 ‘젠더 갈등’ 문제는 4월 선거 결과를 둘러싼 다양한 해석을 말한다. 2021년 4월 재보궐선거 출구 조사를 해석하면서 이를 페미니즘의 문제로 보아 정부의 페미니즘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을 비판하고 여당의 보수적 태도를 지적하는 주장²⁴, 젠더 갈등이라는 말이 마치 동등한 주체 간의 의견 차이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성차별 문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현재 갈등으로 표상되는 양상은 여성혐오와 성차별의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는 주장 등이 그 예이다. 즉, 이는 ‘젠더 갈등’으로 명명되는 현상의 의미를 성평등 관점에서 읽어야 한다는 주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준석의 해당 게시물은 젠더 갈등이라는 프레임이 성차별 문제를 가린다는 주장을 “젠더 갈등이 없다는 사람들”로 규정한다 다음, GS25 포스터에 ‘매갈’ 암호를 남길 정도로 암약하는 ‘매갈’의 ‘남성혐오’와 여성우월주의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으나 현 정부와 여당이 이것을 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인식은 보수 언론과 공명하는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는데, “남혐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였고, 이 남혐의 시대가 함의하는 바는 “MZ세대 남성들, 공정성 시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었다.²⁵

이렇게 젠더 갈등과 남성혐오, 그리고 공정성의 문제가 상호 담론적으로 연동되는 데에는 언론의 핵심적 역할이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준석의 발화, 그리고 진중권과 이준석의 설전 등을 그대로 재유포하면서 담론 연동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또한 언론만의 고유한 장르를 통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는데, 예컨대 5월 2일 진행된 채널A의 ‘MZ세대 정치를 말한다’ 토론회는 “20대 남성의 분노와 젠더갈등”을 연결하는 이준석 행위자의 주장이 합리성을 갖춘 공적 발화로 유통되도록 하였다. 토론의 내용과 페이스북의 발언은 집단지성 지식 서비스라고 주장되는 나무위키에 “GS25 남성혐오가 실재한다는 증거”로 인용되었다.²⁶ 이후 국민의 힘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젠더 문제에서 일반적인 여성주의

24 신지예, 「‘이대남’이라는 헛소리」, 『여성신문』, 2021.04.29.

25 유성운, 「이젠 남혐 경계령…박나래·GS25 이어 ‘1박2일’ 난타당했다」, 『중앙일보』, 2021.05.05.

26 나무위키 문서, 「GS25 남성혐오 논란」, 최종수정일시 2021.08.06. (<https://namu.wiki/w>)

운동은 저도 나쁘게 안 보지만, 최근 젊은 세대가 여성우월주의까지 간 상황을 많이 봤다”라며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교조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남성들 가운데) 반작용이 나온 것”이라고 말한 것은 젠더 갈등은 여성우월주의와 ‘남성혐오’의 문제라는 담론을 선언하는 의미를 갖는다.²⁷

한편 현 정부와 민주당은 청년 세대 갈등 문제를 외면하는 주체로 구성되었다. 청년 세대의 젠더 갈등 문제는 “정부와 여당이 20대 남성을 소외시키고 있고, 그들의 불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20대 여성만을 우대한다”라는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김선기는 정부 비판을 위해 편의적으로 청년 세대를 동원하는 것을 비판하였다.²⁸ 청년 세대의 이름을 빌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행위자는 소셜 미디어와 유튜브 장르에도 존재한다. 2019년 유튜브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유튜브에서 반 페미니즘 담론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²⁹ 유튜브는 최근 조사에 따르면 64.2% 정도의 이용자가 매일 보고 있는 플랫폼이고, 그중 뉴스/시사 정보의 이용률이 42.3%에 달하는 정치 정보 미디어이다.³⁰ 특히, 기성 언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존 보도와는 다른 형식으로 뉴스를 전달하며, 이 과정에서 주목경제적 특성이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MBC의 뉴미디어 브랜드 엠빅뉴스의 유튜브는 관련 논란을 보도하는 영상 제목을 “GS25 이벤트 포스터에 남성혐오 코드 숨어있다? 설마요...?”로 제시한다. 반면 동일한 아이템의 MBC 홈페이지 내 게시 제목은 “GS25 포스터 속 남성혐오 이미지 논란...”역지 주장”vs”남혐”³¹으로 형식적인 객관주의를 따르고 있다. 기성 언론

/GS25 남성혐오 논란)

27 이현미, 「이준석, 당 대표 도전 “2030 젠더 갈등 제대로 대응해야”」, 『세계일보』, 2021.05.07.

28 김선기, 앞의 글, 19-21쪽.

29 김수아 외, 『온라인 성인지적 내용분석 지표개발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23-27쪽.

30 양정애, 「유튜브 사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제7권 1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3쪽.

31 디지털뉴스제작팀, 「GS25 포스터 속 남성혐오 이미지 논란... “역지 주장”vs“남혐”」, 『MBC』, 2021.05.03.

의 뉴미디어 브랜드 보도가 주목성을 얻기 위한 제목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남협”이 전제되는 방식으로 유통되며 이것이 유튜브 수용자의 인식에 호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유튜브 개인 채널 ‘아는 변호사’, ‘지식의 칼’, ‘홀스형’, ‘데드형’ 등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전문가 혹은 ‘형’의 위치에 선 남성 유튜버들은 보다 명확하게 ‘남성혐오’를 하는 ‘메갈’과 페미니즘을 공격하는 주장을 편다. “메갈과 남성혐오, GS25, 경찰, 무신사 사태 완벽정리”, “GS25 남협 논란, 사실 좋은 일이다”와 같은 영상은 ‘메갈’의 역사와 그간의 ‘남성혐오’ 피해 실태를 고발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³² 젠더 갈등 담론의 상호담론성은 “젠더 갈등이 성차별이 아닌 ‘남성혐오’ 대 ‘여성혐오’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면 성차별에 근거한 억압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남성혐오를 하는 페미니즘의 문제가 젠더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담론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3 공정과 성평등 개념의 재맥락화

3.1 양성평등의 인식론과 평등 개념의 재맥락화

‘메갈’과 ‘남성혐오’의 진실화는 페미니즘은 ‘남성혐오’ 사상이라는 방식으로 페미니즘의 의미를 구성한다. 이렇게 페미니즘의 의미가 부정적인 것으로 구성되면서, 페미니즘의 의미는 성평등과 관련해서 문제적이고 총체적으로 부정의한 사상이라는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담론이 GS25 논란을 통해 공론장에서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GS25 논란이 지속되면서, 성평등 보도를 언론사의 저널리즘 가치 중 하나로 선언한 바 있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등은 일련의 ‘메갈’ 논란이 “만들어진 논란”이라고 명명하면서 이를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로 재정의하고자 하였다.³³ 그런데,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면, “우리[청년 남성]

32 해당 영상들은 유튜브에 GS25를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등장하는 영상 중 언론사 채널을 제외한 개인 채널의 영상들이다.

33 박고은·이주빈, 「‘성평등 반대’ 내세운 백래시, 경찰은 왜 타협하나」, 『한겨레』, 2021. 05.05.

도 평등을 옹호한다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주장의 핵심은 성평등과 페미니즘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에서 페미니즘은 평등에 대한 사상이 아니며, 페미니즘은 반대하지만 성평등은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개념화되어 있다. 아래의 기사는 페미니즘 게이트 등이 논란이 되던 시기, 한겨레가 이러한 논란은 성평등에 대한 백래시라고 주장하는 기사에 대한 댓글 사례로, 순공감순 4위의 댓글이다.³⁴

애초에 페미니즘이 성평등주의랑 백만 광년쯤 떨어져 있는데 어디서 백래시 타령이니ㅋ 페미니즘은 말 그대로 여성주의고 애초부터 여성우월주의인데. 성불평등 해소에 일정 부분 기여해 온 것은 맞지만 교단에서 가르칠 내용이 전혀 아니잖아?(하략)³⁵(epfl***, 2021년 5월 17일자 한겨레 신문 기사 네이버 포털 댓글)

여기서 성평등(양성평등)은 바람직한 것,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대립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양성평등이 문제적 페미니즘의 대안으로 설명되는 데에는, 소위 ‘이퀄리즘’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퀄리즘’은 “한국형 페미니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사실상 나무위키를 통해 만들어진 정보로, 제시한 근거가 조작으로 드러나 중국에는 ‘이퀄리즘 조작 사건’으로 정리가 되었다.³⁶ 하지만, 온라인 문화의 특성상 최초 유포된 정보의 초두 효과³⁷에 따라 페미니즘의 대안은 ‘이퀄리즘’이라는 개념이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평등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김보명은 이러한 ‘젠더 이퀄리즘’의 논리가 성차별을 부인하면서 성평등의 의미를 “성적 차이를 초월하여 여성과 남성

34 순공감순 1위와 3위 댓글은 한겨레가 ‘페미’ 언론이라는 비난이고, 2위는 삭제된 댓글이어서 4위 댓글을 인용하였다.

35 김지은·이유진, 「“쌤, 페미죠?” 교실도 휩싸인 백래시」, 『한겨레』, 2021.05.17.

36 김성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문화과학』 제93호, 문화과학, 2018, 93-119쪽.

37 초두 효과란 첫 정보의 영향력을 가장 크게 받는다는 것으로, 처음 주어진 정보가 이후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고, 이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판단하려는 인지적 편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두산백과』 용어 설명)

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으로 의미화하였다고 분석하였다.³⁸

‘이퀄리즘’의 인식들에 따르면 페미니즘은 부정의를 생산하는 사상 체계이다. 여성의 목소리를 국가가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남성의 역차별을 제도화하는 현 페미니즘이 남성들에 대해 불평등한 경험을 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페미니즘은 여성만을 위한 사상으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에서는 보편적으로 통용된다. 예를 들면, 나무위키 및 네이버 지식인과 같이, 온라인 집단지성에 의한 지식 공간에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보는 부정적인 내용이 주류이다. 특히 네이버 지식인의 경우는 페미니즘을 검색하면 노출 정보의 정확도순 순위권에서 페미니즘은 여성우월주의라는 방식의 설명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이퀄리즘’ 인식론은 역사성을 무시하고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성차별의 시정을 이야기하는 페미니즘이 특권을 요청한다는 방식으로 의미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퀄리즘’ 관련 논의들은 주로 온라인 집단지성 정보들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정한 관점에 따라 정리된 내용들이 지식으로 유통되면서 해당 지식이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주장 근거가 되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주장들이 다시 요약되어 언론으로 유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페미니즘이 성평등 주장이 아니라는 다양한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한다.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라는 주장들은 상호텍스트적으로 의미가 축적되고 진실성을 구성하게 되는데, 온라인 지식 사이트들의 페미니즘에 대한 지식(나무위키와 지식인)은 앞서 인용된 바와 같이 이준석의 “페미니즘은 여성 우월주의”라는 발화와 상호 연결되어 맥락화되고, 이는 시간성의 차원으로 설명됨으로써 현재의 페미니즘을 ‘(양)성평등’과 유리된 문제적인 구성물로 만든다. 시간성의 차원이란, “변질되었다”, “변해가는 양상”, “요즘에는”, “최근” 및 “이제 남혐의 시대”와 같이, 언론 장르를 비롯한 다양한 페미니즘에 대한 발화 장르들이 시간적 표현을 통해 페미니즘을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38 김보명,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제56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1-25쪽.

3.2 오염된 정치사상으로서의 페미니즘

이상길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가 갖는 의미를 해석하면서, 2008년의 촛불 시위 맥락에서 ‘순수성의 모랄’이라는 개념을 도출한다. 이는 정치는 오염된 영역이며, 시민은 정치에서 분리된 순수한 주체로서 행위해야 한다는 대중의 인식을 말한다.³⁹ 오염된 정치가 아니어야 순수하고 선량한 시민이 연대할 수 있다는 순수성의 모랄은 추상적 상황이 아닌 구체적 피해가 있거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목소리를 모을 때, ‘시민’이 이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진실화하는 인식 구조이다.

이렇게 오염된 정치의 대표적 사례로 이번 논란에서 등장한 것이 ‘페미니즘 교육 게이트(페미게이트)⁴⁰’이다. 각종 업체와 사이트에 ‘메갈’의 상징이 쓰였다는 제보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온라인 남성 중심 커뮤니티는 ‘메갈’을 삭제하여 정의를 이루려 하는데, 이들의 정의를 위한 노력에 불을 붙이게 된 사건 중 하나가 소위 ‘페미게이트’이다. 이는 “페미니즘 주입교육 의혹” 청원으로 구체화되었고 2일 만에 동의인수 20만명을 돌파해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 논란은 “페미니즘 세뇌 교육은 아동학대다”와 같은 구호로까지 확장되었다.⁴¹ 이렇게 페미니즘이 세뇌 등으로 개념화되는 것은, 페미니즘이 ‘메갈’과 연동되면서 혐오적인 것이 되었기에 이를 교육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들이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소위 ‘페미게이트’에 대한 청와대 청원 본문에서 청원인은 정치적인 사상, 정치적 사상 등 페미니즘 사상이 정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교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정리한다. 또한 여기서 교사와 학생의 관계는 주입, 세뇌 등의 용어를 써서, 페미니즘이라는 정치적 과정이 얼마나 불순한지를 드러내고

39 이상길, 「순수성의 모랄: 촛불시위에 나타난 오염에 관한 단상」, 당대비평기획위원회, 『그대어 왜 촛불을 끄셨나요』, 산책자, 2009, 96쪽.

40 ‘페미니즘 교육 게이트’(페미게이트)란 2021년 5월 5일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페미니즘 교육을 하려는 교사들이 다크웹 사이트를 만들어 세뇌 교육 방법을 공모하고 있다면서 특정 사이트를 문제삼은 사건으로, 청와대 청원으로도 이어졌다. 해당 사이트의 실존 여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41 이재희, 「‘페미니즘 세뇌교육은 아동학대다’」, 『연합뉴스』, 2021.5.18.

자 한다.

“청원일인 5월 5일 새벽 인터넷을 통해 교사 집단 또는 그보다 더 큰 단체로 추정되는 단체가 은밀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사상(페미니즘)을 학생들에게 주입하고자 최소 4년 이상을 암약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녀야 할 교사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려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분을 살 일이나(하략)”⁴²

이러한 논란의 담론적 상호텍스트성은 인헌고 사건⁴³이 보여준 “사상 강요”라는 프레임과 닿아 있다. 이 사건은 사상과 정치는 불순하며 이는 교육 현장에서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주장이 당사자라는 틀을 빌어 주장되었던 경우였다. 한국 사회에서 ‘사상’은 종종 중북, 친북 등 북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으로, 적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언론의 이념적 가치나 정치적 가치에 의해 반대되는 것을 몰아내기 위한 개념으로 쓰여온 역사가 있다.⁴⁴ 결국 페미니즘을 둘러싼 문제는 두 가지로 분화되는데 하나는 특정한 사상이자 정치라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다른 하나는 그 사상의 내용이 “성평등”하지 않다는 점이 된다.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담론 장르는 청와대 청원이다. 청와대 청원은 현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정치 행위의 장으로 구성된 것이다. 국민 청원은 의제 발굴 혹은 설정 기능을 하고, 공중의제를 새롭게 발굴하거나 확산시키며 정치 참여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바 있

42 「조직적으로 학생들을 세뇌하려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수사, 처벌, 신상공개를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8497>) 청원은 2021년 5월 20일 시작하여 최종 청원인 314,254명으로 마감하였다.

43 2019년 인헌고등학교에서 학생수호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사하여, 학교 교육에서 페미니즘, 반일 사상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한 사건이다.

44 주재원,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반공 담론 연대기」, 『언론과 사회』 제25권 3호, 언론과 사회, 2017, 158-220쪽.

다.⁴⁵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 진중권의 토론회 참여 금지 청원이 이루어진다거나, GS25 해군 PX 계약 전면 철회 청원이 올라오는 등, 청원의 장은 종종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세력을 과시하는 가시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⁶ 청와대 청원은 양적 동의를 충분히 획득한다면 사회적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운용되기에, 이 과정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채로 의제화되고 있다. 최근 신남성연대가 동원하는 댓글 여론 선점 논의⁴⁷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손쉽게 양적 동원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청원 내용과 과정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것인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페미게이트’ 사례에서처럼 세력 과시와 반 페미니즘 담론의 진실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페미게이트’에 대해서 언론들은 대체로 이를 의혹 수준에서 일회적으로 다루었고, 한겨레 신문이나 경향신문은 해당 의혹이 터무니없고 페미니즘 교육에는 문제가 없다는 반론 성격의 기사들을 게재하였다. 나무위키는 이에 대해 “아동 세뇌를 시도하는 극악무도한 일이 벌어졌으나 진보 언론이 덮기 위해서 기사화하는 것 외에는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술을 남기고 있다.⁴⁸ ‘페미게이트’에서 “세뇌”라는 표현이 강조되는데, 사상 강요라는 표현이 세뇌로 강화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메갈’ 논란 및 페미니즘 게이트를 통해 ‘세뇌’, ‘숨은’ 등의 음모와 부정의를 함의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한편, 암암리에 누군가가 이를 비호한다는 방식으로 적대를 형성하면서 페미니즘의 부정 의함이 폭로되고 있는 역사적 순간이라는 상상을 하게 만든다. 이에 따라 남성 커

45 김지영·김상현, 「온라인청원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성 :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21권 2호, 지역사회학회, 2020, 131-164쪽.

46 즉, 청와대 청원은 양적 동의를 충분히 획득한다면 사회적 의제로 삼을 수 있다는 방식으로 운용되기에, 이 과정에서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채로 의제화되고 있다. 최근 신남성연대가 동원하는 댓글 여론 선점 논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손쉽게 양적 동원이 가능한 현실에서 이러한 청원 내용들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다룰 것인지가 논의되어야 하는 것이다.

47 조해람·이흥근·한수빈, 「“페미들은 우리 못 이겨” 좌표 찍고 몰려가 공격 ‘댓글부대’ 있다」, 『경향신문』, 2021.08.10.

48 나무위키 문서, 「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논란」, (https://namu.wiki/w/페미니스트_교사_조직의_아동_세뇌_및_학대_논란)

뮤니티 이용자와 지식 서비스 이용자들은 부정의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정의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3.3 페미니즘과 공정의 재맥락화

이처럼 페미니즘 교육이 사상의 강요가 되고 세뇌가 되는 것은 페미니즘이 불공정하고 부정의한 사상이기 때문이다. 부정의한 사상으로 페미니즘이 의미화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동하는 것은 공정 개념의 재맥락화라고 할 수 있다.⁴⁹ ‘양성평등’의 담론은 저울의 은유를 평등으로 인식시키고 있다. 경기도민 20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20대 남성 참여자들은 할당제, 자격 기준의 차별화, 성별 수혜 균등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여성에 대한 할당제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는데⁵⁰, 이는 정책, 제도 등에서 여성의 표지가 제시된 것이 모두 여성의 몫인 저울에 올라가고 남성의 표지가 있는 것은 없다는 점에서 역차별이라는 논리가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양성평등 담론이 성차별의 해소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이해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수용하는 사례들이 확대됨에 따라, 2000년대에는 ‘평등’이 반격을 담아내는 역할이 등장하게 되었”고, “기존의 성별구조에서 생성된 “남성의 이해”가 성별구조를 변화시키려는 “여성의 이해”와 상응하는 것처럼 설정함으로써 남성의 기득권 구조를 강화한다”고 유정미는 분석하고 있다.⁵¹ 한편으로 공정성의 담론은 생물학적 본질주의에 근거하며, 탈맥락화된 상황에서 경쟁과 불안을 자원으로 삼아 경쟁의 논리로 작동하지만, 이것이 여성혐오를 생산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한다.⁵²

요컨대 양성평등은 남녀 간의 배정된 숫자의 공정함, 다시 말해 같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양성평등은 ‘공정’의 의미로 전환되면서 남

49 김보명, 앞의 글, 9-13쪽.

50 임혜경,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2020, 97쪽.

51 유정미,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제35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9, 1-35쪽.

52 김보명, 위의 글, 11쪽.

성에 대한 차별은 무시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방식으로 재맥락화되고 있다. 여성혐오나 성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남성의 피해가 무시되는 것이 젠더 갈등의 의미이며 공정하지 않은 상황으로 해석된다. 이준석 대표의 인터뷰에서 도출된 “공정한 남녀관계 요구하는 것이 여혐인가?”라는 질문은⁵³, 남성이 공정을 주체로 요구하는 것이라는 점이 전제되고, 현재 상황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수사학적 질문이다.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남성의 피해이고, 이것이 여성우월주의인 페미니즘의 문제와 연결되는 담론을 구성한다.

남성 역차별 피해 주장의 핵심은 현재와 과거를 분리하고, 이를 세대론으로 이동시키면서 가능해진다. 과거 구조적 차별을 받았던 여성에게 혜택을 주게 되면 현재 아무런 차별을 당하지 않고 있는 젊은 여성들은 혜택을 보고 과거 차별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젊은 남성들이 차별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치다 다쓰루는 정의는 과거의 불의가 있었다면 지금 교정하고, 현재의 불평등을 교정하고, 미래의 불평등이 예상된다면 역시 그마저 당겨와서 교정해야 한다고 한다.⁵⁴ 이것이 시간성의 맥락 속에서 정의를 주장하는 적극적 평등 조치 옹호자들의 논리라면, 이에 반대하는 경우 시간성의 고려는 현재의 불평등과 차별을 가져온다고 말하면서 과거의 성차별을 현재에 교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20대 여성은 과거의 성차별을 보상받는 특권적 주체로, 20대 남성은 과거의 성차별 때문에 피해를 보는 주체로 구성하게 된다. 남성이 현재의 피해자라는 주장들은 여론조사 분석 기사들을 통해 진실로 확정되는 경향이 있다. 앞서 기사의 목소리 분석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대남’의 목소리에서 차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할당제의 의미 역시 오해되고 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일종의 동조 효과를 발생시키며 남성들의 피해가 실제 존재하고 또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경기연구원의 조사분석 연구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는데, 해당 보고서는 “남성들은 현재 상황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그러니 “진정한 성평등”

53 김명일·최혁, 「인터뷰-이준석 “공정한 남녀관계 요구하는 것이 여혐인가?”」, 『한국경제』, 2021.05.08.

54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반지성주의자들의 초상」,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편,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우리는 왜 퇴행하고 있는가』, 이마, 2016, 33-40쪽.

을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⁵⁵

남성의 피해를 현실적인 것이자 실제적 문제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것 중 하나는 유튜브 플랫폼을 통해 형성되는 공유된 ‘우리-내러티브’이다. 앞서 예를 든 ‘지식의 칼’ 채널에서 제작한 영상, 「GS25 남혐 논란 사실 좋은 일이다」라는 11분 47초의 영상⁵⁶은 “20대 남성이 메갈 이후 지속된 남성 혐오에도 참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너무 억울해서 말을 꺼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번에 결집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참아왔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수사는, 새로운소통연구소 등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당사자가 분석한다는 당사자 발화자들이 ‘젠더 갈등의 실체’로 언급하는 내용과 상호텍스트성을 이루고 있다.⁵⁷ 이러한 공유된 ‘우리’라는 내러티브는 집단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한 상상된 현실을 만들어낸다.⁵⁸ 또한, 이와 같은 유튜브 영상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거의 1일 이내 바로 올라오는 편이다. 즉각적인 대응으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것이다. 유튜브 반 페미니즘 영상들의 특징 중 하나가 ‘생각’이 반복되는 것, 즉 개인적 의견 발화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분석된 바 있다.⁵⁹ 일방적으로 주장되는 내 생각에 불과하지만 분석이라는 틀을 빌어(‘완벽 정리’와 ‘분석’ 등의 수사적 표현과 강화 표현이 반복된다) 제기되면서 남성 경험의 억울함, 피해의식은 ‘우리-내러티브’ 안에 경험되어 유튜브 내의 정동 구조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우리-내러티브’는 적극적인 행위 주체성을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⁶⁰ 소비자 권리 운동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우리-내러티브’의 공유와 관련될 수 있다.

55 오재호·박원익.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이슈&진단』 제 441호, 경기연구원, 2020, 1-25쪽.

56 지식의 칼, 「GS25 남혐 논란, 사실 좋은 일이다」, 2021.05.03. (<https://www.youtube.com/watch?v=UYHBflzPEY8&ab>)

57 김도연, 「진보언론이 계속 ‘이대남’을 외면한다면」, 『미디어오늘』, 2021.06.11.

58 Deborah Tollefsen and Shaun Gallagher. “We-Narratives and the Stability and Depth of Shared Agency.”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47(2), 2017, pp. 95-110.

59 김수아 외, 2020, 앞의 책, 36쪽.

60 Tollefsen and Gallagher, *op.cit.*, pp. 102-103.

3.4. ‘우리-내러티브’와 소비자-시민

‘메갈’에 대한 남성 커뮤니티의 투쟁은 불매운동의 형식을 갖추어 표현되어 왔다. 2016년 클로저스 게임으로 시작하여 웹툰으로 확장된 논란에서는 ‘에스컷’이라는 작가 퇴출 운동으로, 2018년 게임 업계에서는 계정 해지 운동을 통해 일어났고 2021년에는 일반 소비재에서부터 공공기관, 자선단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불매 운동 선언으로 이어졌다. 소비자 운동 참여 동기는 불매운동에 대한 효능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높아지게 되는데, ‘메갈’ 논란 효능감 수준은 게임 업계 및 기타 유통업계 등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반응하였기에 매우 높다.⁶¹ 한편으로는 이러한 점에서 소비자 운동이 통하지 않는 정부와 교육부 등의 정부 부처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며, 이것이 현재 정권에 대한 불신 및 페미니즘을 옹호하는 정부라는 프레임을 구성하는 데 기여한다.⁶²

GS25 불매 운동과 관련된 온라인 남성 커뮤니티를 비롯한 온라인 행위자들의 ‘우리-내러티브’를 보면, 이번의 불매운동은 일종의 진보이자 자기구제적 맥락이라는 내러티브가 구성되었다. “여혐이라면서 아무 근거 없이 비난을 받아와도 무력했던” 과거를 벗어나, “페미들이 사용하는 몰려가서 욕하고 싸우고 불매 운동 한다고 깽판을 치는” 방식을 자신들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보이루’로 억울한 비난을 받은 무력감을 상쇄하여 ‘허버허버’를 물리친 승리의 역사로 기록된다.

소비자-시민 운동은 민주주의적 실천임이 분명하며, 여성혐오를 근거로 하는 불매운동 역시 사과문 게재 등으로 기업이 대응하는 일정한 피드백을 얻어왔다. 그런데 이민주는 이러한 피드백의 과정에서 기업이 응대 여부를 결정하는 권

61 박은아·박민지, 「누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가?: 기업의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불매운동 참여의도 형성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19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18, 121-138쪽.

62 나무위키의 페미니즘 게이트 항목 설명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문제에 대해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있으며 경찰 역시 고의 부실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기술한다. ([https://namu.wiki/w/페미니스트 교사 조직의 아동 세뇌 및 학대 논란](https://namu.wiki/w/페미니스트_교사_조직의_아동_세뇌_및_학대_논란))

력을 갖는다는 점을 짚었는데⁶³, 이는 결국 불매운동을 당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어떤 소비자의 목소리에 반응하는가가 정치적 과정이 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어 준다. GS25를 비롯한 기업과 공공기관이 1일 이내의 빠른 반응을 내놓으면서 소비자 시민의 역능감이 고조되는 경험을 통해 ‘우리-내러티브’를 구성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시민 운동의 성공은 정치적 효능감으로 변환되고, 윤리적인 주체로서의 ‘이대남’이라는 주체의 위치, 부정의한 페미니즘이라는 대상의 구성, ‘우리’를 구성하는 억압과 역차별의 역사를 구축하여 ‘메갈’의 삭제, 즉 페미니즘이라는 불순한 사상의 배제를 공식화하는 담론을 구축하게 되었다.

4 나가며

다음의 <표3>은 이제까지 분석된 GS25의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을 비롯하여 2021년 상반기에 진행된 반 페미니즘 담론의 분석 범주와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주요 행위자와 사건이 ‘남성혐오’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이것이 공정 담론과 연결되면서 페미니즘이 결국 부정의한 사상 체계로 정리되는 담론 구조를 보여주었다. 이는 온라인 공간의 떠도는 발화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실제화되고, 언론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이 되어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시 유포되면서 공정에 대한 담론을 페미니즘을 제외하여 재맥락화하는 과정을 통해 구성된 것이다.

표3. ‘메갈 손가락 기호’ 논란 및 반 페미니즘 담론에 등장한 주요 분석 범주

담론 전략	주요 내용
행위자와 사건의 명명	행위자: ‘메갈’과 남성혐오자, ‘페미 세력’, ‘이대남’, 이준석(진중권) 사건: 음모, ‘남혐’ ‘세뇌’ 시도, ‘게이트’ 현상: 남성혐오 사상 전시, 정치적 사상 강요, 분노(발끈)
속성의 부여	‘메갈’과 ‘페미니즘 세력’: 부정의 분노한 (20대) 남성: 정의

63 이민주, 「#피드백 운동의 동역학」, 『인문잡지 한편』 제2호, 2020, 91-112쪽.

논증 방식	논란의 언론 보도를 통한 실체화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내러티브화와 지식화
관점화	소비자-시민의 권리, 공정의 재맥락화
명시적 드러내기 (강화)	세뇌하는 사상(강화), 삭제, 배제(강화)

페미니즘이 부정의가 되는 과정에는 시간성과 역사성의 제거 문제가 있었다. 페미니즘은 현재 변질된 것으로 단언되고, 남성의 피해가 현실인 것은 현재의 맥락에서 ‘남성혐오’의 피해를 경험하기 때문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남성혐오’로 인한 피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여성 할당제로 인한 남성의 취업 위기 등 상상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경향이다.⁶⁴ 아무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므로 ‘펜스룰’을 작동하여 스스로 구원해야 했던 주체들이었던 것처럼⁶⁵, ‘이대남’은 ‘메갈 삭제’라는 자기 구체적 활동을 벌이는 중이라고 의미화된다. ‘이대남’의 윤리적 위치가 구성되어, 시간성을 동원하여 페미니즘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오염된 현재의 문제로, 남성 청년의 삶은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과거의 성차별에 의한 부당한 짐을 현재에 해결하러면서 억압을 당하는 ‘우리 내러티브’가 이러한 담론의 재맥락화를 통해 구성되었다.

‘이대남’ 담론이 언론과 정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대남’은 청년 남성의 삶에 관계된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다기보다는 정치의 장 속에서 구축된 담론적 주체의 위치이다. 선행 연구가 지적한 바와 같이 20대 청년은 단일한 구성체가 아니다. 청년 고용의 문제가 경제 민주화와 기업의 책임 강화 등 사회적 진보를 위한 패러다임 속에서 재설정되지 않는 정치 담론과 헤게모니 투쟁 속에서 ‘이대남’은 각기 필요에 따라 호명되면

64 상상적이라는 의미는, 실제로 여성 할당제가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양성채용목표제와 같은 제도의 수혜자는 오히려 남성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실과 상관없이 제도의 존재 자체가 남성의 피해라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65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제35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2018, 3-35쪽.

서, 문제의 원인을 페미니즘으로 돌리는 정치장을 구성하고 있다.⁶⁶ 이러한 과정 속에서 페미니즘과 성평등은 결합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공정의 성취는 페미니즘과 같은 여성 편향 사상이 없어야만 가능하다는 공정 개념의 재구성이 나타난다. 페미니즘이 성평등과 분리되고, 공정이 양성평등과 결합하면서 기계적 균형론, 저울 균형이 평등이자 공정의 의미로 재맥락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페미니즘을 공정 담론에서 제거하려는 담론적 실천들에 대한 대안을 구축해야 한다. 먼저 “20대 남성 절대다수는 성평등과 페미니즘을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한다”⁶⁷라는 결과들을 해석하고 논의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최근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이 결과를 해석하기보다는 이를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과거 성평등 이슈는 여성의 지위를 끌어올리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공정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⁶⁸는 결론이 바로 이러한 예시이다. 이는 ‘이대남’의 문제를 지지율 문제로만 해석하고, 청년 세대의 비정규직화로 인한 갈등과 불안을 다루지 않으면서 손쉽게 적대를 통해 지지율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한편으로 김선기의 지적처럼⁶⁹ 세대를 구분하면서 특정 세대의 생각을 사실로 절대화하고 페미니즘의 문제를 세대의 문제로 전환하면서 우리 사회의 모두가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지우는 효과를 갖게 되기도 한다. 오히려 정치는 왜 남성 청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해야 한다. 20대 남성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은 그것을 사실 그 자체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둘러싼 지난한 대화와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이며, 한편으로 그리하여 이를 어떻게 페미니즘 윤리에 근거를 둔 공정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지를 다루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또한, 청년 세대 문제는 과거와 같은 안정적 정규직 임금 노동을 전제로 하는 고용이 불가능해진다는 물적 조건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페미니즘

66 권명아, 「젠더갈등 프레임과 고용유연화와 신체 정치: 불태워지는 것은 여성들만이 아니다」, 젠더어팩트 연구소 긴급토론회 발표문(2021.06.05.), 6-16쪽.

67 오재호·박원익, 앞의 글, 18쪽.

68 위의 글, 20쪽.

69 김선기, 앞의 글, 23쪽.

의 윤리가 개인에 대한 사고의 틀을 전환하면서 공존과 연결을 위한 관계적 윤리를 강조해온 것은⁷⁰, 물적 조건의 변화를 이끌어 낼 힘이 신자유주의적 경쟁에 기반을 둔 공정 논리를 통해서 구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계는 연대를 어렵게 하면서 세대간, 성별 간의 책임을 상호 미루는 방식으로 담론을 구성해 내고 있다. 정의를 이루기 위한 근본적인 요구들이 가려지는 ‘이대남’과 ‘젠더 갈등’ 담론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치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페미니즘과 성평등, 그리고 공정의 의미가 다시 결합하는 담론 재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를 구조화하는 윤리의 재구성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언론이 ‘이대남’을 호명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이러한 호명 방식이 상업적 목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다룰 필요가 있다. 포털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회수 상승을 위해 젠더 이슈를 활용하는 언론들은 ‘이대남’을 부각하면서 갈등을 유도하고, 남성 중심 커뮤니티의 주장을 중계하고 이를 사실화하는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커뮤니티 이용자의 공동체성을 강화해준다. 사회적 갈등을 창조하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언론의 보도 양상에 대한 대안이 결국 저널리즘의 제고를 통해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들이 제기되는 중이지만, 저널리즘의 문제 외에도 포털이라고 하는 담론장이 이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 근거를 둔 플랫폼 규제 역시 중요해진다.

이 글은 대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에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메갈’ 낙인의 담론들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적 맥락과 과정을 세세하게 드러내지 못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국면적 분석은 물론 담론 장르 개별에 대한 세부 논의가 필요하다. 예컨대 청와대 청원, 포털과 유튜브의 기능, 알고리즘의 문제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으나, 이 연구 결과는 담론에 재현된 정치 당사자들의 페미니즘 배제 담론 구성 문제를 다루어 이를 전환하기 위한 문제들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70 Judith Butler, *The force of nonviolence*, London: Verso, 2019, p.57.

참고문헌

단행본

- 김수아 외, 『온라인 성인지적 내용분석 지표개발 연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2020, 23-27쪽.
- 마경희 외, 『청년 관점의 젠더 갈등: 진단과 포용 국가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0, 336-338쪽.
- 이상길, 「순수성의 모탈: 촛불시위에 나타난 오염에 관한 단상」, 당대비평기획위원회, 『그대는왜 촛불을 끄셨나요』, 산책자, 2009, 96쪽.
- 임혜경, 『경기도 20대 성차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 2020, 경기도여성가족재단, 97쪽.
- 천관율·정한울, 『20대 남자: ‘남성 마이너리티’ 자의식의 탄생』, 시사IN북, 2019, 59-100쪽.
-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반지성주의자들의 초상」, 우치다 다쓰루(内田樹) 편, 김경원 역, 『반지성주의를 말하다 : 우리는 왜 퇴행하고 있는가』, 이마, 2016, 33-40쪽.
- Judith Butler, *The force of nonviolence*, London: Verso, 2019, p.57.
- Matin Reisigl and Ruth Wodak,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eds., John Flowerdew & John E. Richardson, *The Routledge handbook of critical discourse studies*, Routledge, 2017, p.90, pp.92-94.

논문

- 권명아, 「젠더갈등 프레임과 고용유연화와 신체 정치: 불태워지는 것은 여성들만이 아니다」, 젠더어팩트 연구소 긴급토론회 발표문(2021.6.5.), 6-16쪽.
- 김보명, 「젠더 갈등과 반페미니즘의 문법」, 『비교문화연구』 제56호,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1-25쪽.
- 김선기, 「납작한 당사자주의의 한계와 ‘이대남’ 정치」, 젠더어팩트 연구소 긴급 토론회 발표문(2021.06.05.), 18-23쪽.
- 김성윤, 「“우리는 차별을 하지 않아요”」, 『문화과학』 제93호, 문화과학, 2018,

93-119쪽.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공간의 미투 운동에 관한 담론 분석」, 『여성학논집』 35권 2호, 한국여성연구원, 2018, 3-35쪽.

김수아·이예슬, 「온라인 커뮤니티와 남성-약자 서사 구축」, 『한국여성학』 제 33권 3호, 한국여성학회, 2017, 67-107쪽.

김영미, 「계층화된 젊음: 일, 가족형성에서 나타나는 청년기 기회 불평등」, 『사회과학논집』 제47권 2호, 연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6, 27-52쪽.

김지영·김상현, 「온라인청원을 통한 정치 참여의 특성: 청와대 국민청원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제21권 2호, 지역사회학회, 2020, 131-164쪽.

박대아, 「남성혐오표현과 여성혐오표현의 상호작용 연구-반사형(反射型) 혐오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제76호,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95-118쪽.

박은아·박민지, 「누가 불매운동에 참여하는가?: 기업의 비윤리적 사건에 대한 불매운동 참여의도 형성요인에 관한 구조모형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소비자·광고』 제19권 1호, 한국심리학회, 2018, 121-138쪽.

신진욱·조은혜, 「세대 균열의 현실, 세대 담론의 재현: 세대 불평등 담론의 유래에 관한 질적 담론사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18권 1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20, 49-99쪽

양정애, 「유튜브 이용자들의 ‘유튜버’에 대한 인식」, 『미디어 이슈』 제7권 1호, 한국언론진흥재단, 2021, 2-3쪽.

오재호·박원익, 「젠더갈등을 넘어 성평등한 사회로」, 『이슈&진단』 제441호, 경기연구원, 2020, 1-25쪽.

유정미, 「반격의 “양성평등”에서 “(양)성평등”의 재정립으로」, 『한국여성학』 제 35권 2호, 한국여성학회, 2019, 1-35쪽.

이민주, 「#피드백 운동의 동역학」, 『인문잡지 한편』 제2호, 2020, 91-112쪽.

이설희·김수아·홍남희, 「온라인 성차별적 혐오표현의 특징과 내용 규제 쟁점」, 『미디어, 젠더 & 문화』 제35권 3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61-103쪽.

이준웅·박장희, 「모든 더러운 말들: 증오발언 규제론 및 규제반대론 검토」, 『서

- 『서울대학교 법학』 제59권 3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1-43쪽.
- 정희진, 「‘남성 혐오’는 가능한가」, 『인물과사상』 제210호, 인물과사상사, 2015, 110-124쪽.
- 주재원, 「민주화 이후 한국 언론의 반공 담론 연대기」, 『언론과 사회』 제25권 3호, 언론과 사회, 2017, 158-220쪽.
- 최종숙, 「‘20대 남성 현상’ 다시 보기: 20대와 3040세대의 이념 성향과 젠더 의식 비교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125호, 비판사회학회, 2020, 189-224쪽.
- Deborah Tollefsen and Shaun Gallagher, “We-Narratives and the Stability and Depth of Shared Agency,” *Philosophy of the Social Sciences*, 47(2), 2017, pp. 95-110.

기사

- 강푸름, 「‘한남충’이 모욕죄? 그럼 맘충·김치녀는?」, 『여성신문』, 2017.07.24.
- 김명일·최혁, 「인터뷰-이준석 “공정한 남녀관계 요구하는 것이 여혐인가?”」, 『한국경제』, 2021.05.08.
- 김지은·이유진, 「“쌤, 페미죠?” 교실도 휩싸인 백래시」, 『한겨레』, 2021.05.17.
- 디지털뉴스제작팀, 「GS25 포스터 속 남성혐오 이미지 논란…“억지 주장”vs“남혐”」, 『MBC』, 2021.05.03.
- 민주언론시민연합, 「‘집계 손가락 포스터’ 논란 언론이 키운 백래시」, 『미디어오늘』, 2021.06.28.
- 박고은·이주빈, 「‘성평등 반대’ 내세운 백래시, 경찰은 왜 타협하나」, 『한겨레』, 2021.05.05.
- 신지예, 「‘이대남’이라는 헛소리」, 『여성신문』, 2021.04.29.
- 유성운, 「이젠 남혐 경계령…박나라·GS25 이어 ‘1박2일’ 난타당했다」, 『중앙일보』, 2021.05.05.
- 이기범, 「“왜 여성민우회 팔로우했나?”…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 검증 논란 확산」, 『블로터』, 2018.03.28.
- 이다원, 「워마드 비하·혐오 유해게시물 시정요구 1년간 5.7배 급증」, 『서울경

제』, 2018.10.26.

이동준, 「남혐 논란에 ‘숨은 메갈’ 찾아 삭제하기 바빠… 교촌, 인스타서 이미지 삭제」, 『세계일보』, 2021.05.07.

이재희, 「‘페미니즘 세뇌교육은 아동학대다」, 『연합뉴스』, 2021.5.18.

이현미, 「이준석, 당 대표 도전 “2030 젠더 갈등 제대로 대응해야”」, 『세계일보』, 2021.05.07.

장근욱, 「“저 손모양 뭐냐” GS25 포스터에 ‘이대남’ 발끈한 이유」, 『조선일보』, 2021.05.02.

조해람·이홍근·한수빈, 「“페미들은 우리 못 이겨” 좌표 찍고 몰려가 공격 ‘덧글 부대’ 있다」, 『경향신문』, 2021.08.10.

Abstract

Men in their Twenties Angry at Feminism

: Discourse Analysis of “*Megal* and the Finger Controversy”

Kim Sooah

This article clarifies the context in which anti-feminist arguments have prevailed in online spaces since the late 2010s. By applying the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this article analyzed the discourse surrounding *megal* and the finger controversy. Through an analysis of media reports, this paper reveals the key agents in the field of discourse that is constituted by the media, politics, social media, online knowledge services, and Blue House petitions. In this discourse, feminism has been conceptualized as a system of unfair ideas. Moreover, a discourse has formed whereby men in their twenties who are angry at feminism and claim to be victims of ‘misandry’ have sought to build a consumer movement based on ethical beliefs in order to bring about justice. It has been argued that the ruling party of the government and progressive powers have turned away from the discourse of fairness, and the opposition party has in turn conceptualized fairness as mechanical balance and competition, which is offered as an alternative to feminism. Social media and online knowledge services have conceptualized feminism as being against gender equality, and men have formed a “we narrative” about how men have endured ‘misandry’, and they have built a capacity for collective action centered on consumer civic-mindedness. These discussions criticized the negative recontextualization of feminism and identified points

that must be debat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feminism.

Key words: feminism, anti-feminism, 'misandry', gender-equality, discourse-historical approach

본 논문은 2021년 7월 16일에 접수되어 2021년 7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정의 심사를 거쳐 2021년 8월 3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